‘컷오프’ 정준호, 이용섭 지지 선언

‘박빙’ 민주 광주시장 경선 영향 주목

강기정 후보와 지지기반 겹쳐 강측 “경선 판세 변화 없을 것”

이용섭·강기정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의 경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선에서 ‘컷오프’(탈락)된 정준호 변호사 등이 이 예비후보를 지지하고 나서면서 경선 판세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또 김해경 남부대 초빙교수도 21일 이 예비후보 지지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20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호남 무시에 맞서 당당하게 더 크고 더 강한 광주를 중단없이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준비되고 검증된 이용섭 예비후보가 시정을 맡아야 한다”고 지지 이유를 밝혔다.

이어 “86세대는 기득권의 상징이고, 이미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면서 강 예비후보를 직격했다. 그러면서 “광주에서부터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만들 정치 세대를 육성해야 한다. 이용섭 후보가 욕심 없이 미래 세대의 길잡이 역할을 해줄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예비후보 경선 캠프에서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 선거 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정 변호사와 함께 참석한 이 예비후보는 “광주는 시장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광주를 사랑하는 수많은 청년과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며 “그 청년들과 시민들의 꿈과 열망을 뒷받침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화답했다.

정 변호사가 청년층을 중심으로 일정 부분 지지세가 있는 데다, 강 후보와 지지 기반(광주 북구갑)이 겹친다는 점에서 23일부터 시작하는 민주당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정 변호사는 유일한 청년 후보임을 내세워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자 공모에 신청했지만, 지난 14일 경선 심사에서 탈락했다.

정 변호사가 이날 이 예비후보를 지지 선언하고 나섬에 따라 이 예비후보 측은 고무되는 분위기다. 그동안의 각종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 간 격차가 오차범위 내에서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는 만큼 정 변호사의 지지 선언이 경선 여론조사에서 이 예비후보 지지율 상승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반면, 강 예비후보 측은 정 변호사의 이 예비후보 지지선언에도 경선 판도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정 변호사는 2020년 총선에서 강 후보의 지역구였던 광주 북구갑에서 민주당 공천을 두고 조오섭 현 의원과 경쟁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민주 장흥군수 경선 후보자 선정 하루만에 무효처리

공천 심사 불복 재심·무소속 출마 경선 후보자 합종연횡도 잇따라

민주당 전남도당의 경선 후보자 선정을 놓고 잡음이 줄을 잇고 있다. 경선 후보자 선정 하루만에 무효로 처리되는가 하면, 경선 후보자 선정 방식에 반발해 탈당하는 후보자도 줄을 잇고 있다. 경선 후보자 간 합종연횡도 잇따르고 있다.

20일 민주당에 따르면 중앙당 재심위원회는 장흥군수 후보 공천을 신청했던 4명(김순태·사순문·신재춘·홍지영)이 신청한 1차 예비경선에 대한 재심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인용’ 결정했다. 재심을 신청한 4명을 제외한 상태에서, 민주당 전남도당이 3명의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1차 여론조사를 실시해 2명의 후보자로 압축한 지 하루만에 경선 결과가 무효가 된 것이다.

당헌·당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민주당 전남도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의 무능함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전남도당은 공관위 결정에 따라 장흥군수 경선을 2차례 여론조사(권리당원 50%, 일반군민 50%)만으로 진행키로 했었다. 하지만 진행 과정에서 탈당·무소속 출마 경력 등으로 감점 대상에 포함됐던 일부 후보들(3명)이 감점을 받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나머지 후보들이 반발하며 여론조사 경선에 응하지 않아 예비 경선부터 파행됐다.

이들 후보들은 “정치신인과 당에 남아 헌신적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을 ‘학살’하고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자들을 위한 기준으로 경선을 치르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후보들 반발에도, 곽태수·김성·조재환 후보 등 3명 모두 지난 선거에서 민주당을 탈당해 출마한 경력이 있는 후보자들만을 대상으로 1차 여론조사를 강행해 2명으로 압축했다가 중앙당 결정으로 다시 경선을 치러야할 상황이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 공천을 신청했다가 배제된 김산 무안군수, 유두석 장성군수, 노관규 전 순천시장 등도 공천 심사 과정에 불복,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거나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중앙당의 재심 인용 결정에 따라 오는 23일 공관위를 다시 열고 경선 절차 등을 재차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경선 방식이 확정된 뒤 완도군수 경선에 나선 김신·신영균·지영배 예비후보 등 3인은 후보 단일화를 공식 선언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발언하는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6·1 지방선거 라운지

강기정 “무장애 도시, 더불어 당당한 복지 광주 만들것”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무장애 도시, 차별없는 사회, 더불어 당당한 복지 광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 예비후보는 최근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의 장애인 이동권 논란에 대해 “다수의 불편을 앞세워 소수의 권리를 짓밟는 것은 비문명적이고 독선적인 정치이다”며 “국가와 지방정부는 장애인들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를 지켜나갈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상생형 장애인 맞춤 건강관리 패키지 ▲장애인·다문화가정 등 공공산후조리원 조성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권기념관, 광주장애인회관 건립 ▲장애인 노동권보장 ▲장애인 평생교육시스템 구축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강화 ▲장애인 가족지원 강화 등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강동완 시교육감 예비후보 “정치적 이슈 단일화 반대”

강동완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는 20일 “교육을 정치적 이슈로 주도하기 위한 (후보 간)단일화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최근 일부 예비후보간 단일화 문제와 관련, 언론에 자신이 언급된데 대해 “단일화에 대해 다른 어떤 후보와도 논의했거나 언급한적이 없다”며 “이같은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교육은 어떠한 정치적 행동이나 목적이 개입돼서도 안되며 교육의 수준을 높이고 향상시키기 위한 창의적 과정이 필요할 뿐”이라며 “교육감 선거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임택 “장애인 편리하고 안전한 삶 환경 구축”

임택 광주 동구청장 예비후보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차별과 편견이 없는 사회,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임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고 자신들의 인권, 사회권, 경제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를 위해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한 무장애시설 확충 ▲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대 ▲중증장애인 가구 리모컨 전등 설치 사업 ▲장애인 커뮤니티 공간 운영 ▲장애인 재능 발굴과 활용 체계 구축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최치현 “선거 공통공약 지역협의체 구성” 제안

최치현 광주 광산구청장 예비후보는 20일 ‘선거 공통공약 지역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최 예비후보의 협의체 구성 제안은 지역사회의 역량을 결집해 6·1지방선거에 나선 광산구청장 후보들의 공통 공약을 함께 추진하자는 취지다.

광산구청장 예비 후보들의 공약 가운데 ▲광주공항 이전 ▲광주송정역과 역세권 개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 등이 공통으로 포함돼 있다.

최 예비후보는 “광산구와 광주 전체의 미래를 결정할 사안인 만큼 지역 국회의원과 광산구청장 후보 등 지역 정치인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풀어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제안했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윤난실 “경선 과열·혼탁…정책선거로 전환”

윤난실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청장 예비후보는 20일 “공정하고 깨끗한 경선에 임하면서 남은 기간 정책 선거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윤 예비후보가 공정 경선을 발표한 배경에는 최근 당내 경선 과정에 일부 후보를 제외한 여론조사 결과가 SNS로 배포되는 등 민주당 광산구청장 경선이 과열 혼탁 양상을 보인데 따른 것이다.

그는 이날 발표문을 통해 지방자치 훼손을 막기 위해 민주당 광산 갑, 광산을 지역위원회의 엄정 중립을 요구했다. 또한, 경선 남은 기간 동안 정책 선거에 임하면서 민선 7기 ‘행복으로 광산정책 20’ 등의 주요 정책을 자신의 주요 정책으로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MODERN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

중앙신용
꼭! 받아야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전원주택 개발부지
담양읍, 다가구, 사옥 등 다용도 부지, 임야, 매매
1 전원주택 개발부지 건물 후면 선산 명지
담양. 금성. 덕성리 덕진산 아래 광주간 20분 4차선 신설도로 근접
• 2층 건물 철근 콘크리트조 적벽돌외벽 스라브즙 129㎡(39평)
• 토지 8,098㎡(2,452평) 50여년생 명품소나무 8주와 정원수 및 과수 380여주 포함
• 경관 수려한 숲속 전원주택 10여체 조성 가능
• 2층 기존 건물 후면 선산 명지 조성 가능 매 7억원
2 전원 주택용 부지와 식재된 조경수 20여년생 8종 1천5백주 포함
•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 경계 신설 4차선 I.C 근접 광주간 20분 계획관리지역 전 9,190㎡(2,780평) 느티나무, 소나무 등 20여년생 외 7종 1천5백여주 조경수 포함
• 전원주택단지, 물치장, 펜션, 가든, 커피숍 다목적 사용부지 구내포장 배수로 시설 남향에 아미산 바라본 경관수려 ㎡ 9만원
3 다가구. 고급주택. 사옥 등 다용도 부지(주거 2종)
• 담양읍 양각리 강변 유럽마을 조성지 근접 광주간15분 공용주차장 3면도로접 남향 교통요지 시장인접 다가구 사옥 다용도 부지 4.220m2(1.276평) 매 ㎡ 9십만원
4 임야 내 휴양림 30여년생 편백 1만여주 식재 마을 변방
(1) 영암읍 학송리 계획관리지역, 취락마을 용지 포함. 현 국도 4차선 근접 2023년 고속도로 완공시 톨게이트 300m 지점 광주간 25분 소요, 임야 76,000㎡(22,990평) 구내옹달샘 전원주택지 귀농·귀촌·휴양자 적합 매 ㎡ 6천원
(2) 담양. 월산면 중월리 광주간 25분 임야 62,810㎡(19,000평) 농림지역 농로접 적송다수자생 생약재배 캠핑장. 휴양지 농가주택 가능 매 ㎡ 5천원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561-5(삼성홈플러스 길 건너편 동광주빌딩)
대영공인중개사 대표 김용주 010-3454-2389